

# 1961년 부산서 설립된 정우회 변함 없는 동지애 과시

43년이라는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얼마나 있을까.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강산이 네 번이나 변할 만큼 긴 시간동안 변하지 않고 고이 간직된다면 그것이 지니는 존재 가치는 또 얼마나 되는 것일까.

정우회(회장 정현수). 지난 1961년, 부산지역의 활판 및 정판업체를 경영하던 8명의 인쇄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으로 올해로 설립 43년째를 맞이한다.

서로 남의 영역 침범하지 않고 '정도경영'을 실천하지는 취지 하에 생겨난 정우회는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모임이다.

1961년도라는 설립 년도는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나 부산인쇄공업협동조합보다도 1년 앞선 것으로 모임의 오래된 역사가 특별하다. 부산 지역의 인쇄관련 여러 친목단체들도 정우회의 오랜 역사 때문에 정우회를 여러 친목단체 중 으뜸으로 치기를 주저하지 않는단다.



정현수 정우회 회장

43년 동안 유지되어온 모임의 힘을 묻자 정현수(76·국제인쇄주식회사 대표)회장은 "힘이랄 게 뭐 있나요. 회원사들이 조그만 하지만 그래도 부산에서는 알아주는 기업들이고 또, 회원 스스로가 초창기 설립 원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며 회원사들에게 공을 돌렸다.

초창기 회 운영의 원칙이 강조되곤 하지만 설립 이후 회에 가입한 사람도 더러 있다. 이때는 기존 회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 회원 추천 이후 나머지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초창기 회 운영의 원칙은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는데 회원사의 영업사원들에게는 '정우회 회원사의 거래회사에는 출입도 하지 말라'라는 철칙이 내려지고 있다.

또 하나는 여타의 조직처럼 세 불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애초에 8개 업체 대표로 시작된 모임은 지금도 초창기에서 4개 업체가 늘어난 12개 사에 지나지 않는다.

정현수 회장은 "세 불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창기 우리가 세웠던 모임 운영의 목표가 얼마나

# 43년 이어온 인쇄업 동반자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타 친목 모임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작아 보이지만, 회원 모두가 작지만 의미 있는 모임의 구성원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라며 회 운영의 원칙을 강조했다. 12개 회원사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지만 부산지역에서 정우회가 발휘하는 힘은 12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이상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는 민주화의 바람에 힘입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 그야말로 대 격동기에 해당하는데 그나마 노사분규가 적다는 인쇄업계도 이 시기에는 예외가 아니었다.

부산의 인쇄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특징이 있다면 산업별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우회의 경우 회원사들의 규모가 부산 지역 전체 인쇄업계의 향방을 가를 만큼 컸던 관계로 정우회 회원들이 경영자 대표로 주로 나섰다.

정현수 회장은 “당시 내가 정우회 회장으로 있던 관계로 노사교섭 대표로 나서곤 했습니다. 노측과 경영자 측이 요구하는 액수가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간단한 설렁탕 한 그릇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정성으로 대했더니 경영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더군요. 우리도 십분 양보해서 타결이 무사히 끝나곤 했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부산 지역 인쇄업계에서 정우회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비단 노사문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정우회 회원들은 바쁜 일정 중에도 지역 인쇄업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다.

하계민 현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정우회 회원이며, 12대에서 16대 이사장을 지낸 조병섭 전 이사장도 정우회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아울러 하계민 이사장을 포함 8명의 정우회 회원이 부산조합 이사로 활동 중이며, 정현수 회장이 조합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다.

여러모로 전국 어디에 내어놓아도 흠 잡을 곳 없는 조직에서도 아쉬운 게 있으니 바로 흘러가는 세월이다.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70을 웃도는 관계로 유명을 달리하는 회원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워진 자리는 2세들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워낙 많이 나는 세월 탓에 2세 경영자의 경우 쉽게 적응을 못하고 모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아~ 참 아쉽습니다. 인쇄업을 하면서 서로 생과 사를 같이할 만큼 절친한 동료들이었는데 역시나 흘러가는 세월을 가래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초창기에 비해 회원들의 연령대가 대폭 올라가면서 근년에는 예전에 비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인쇄와 특별히 상관 없이도 도자기 공예와 관련된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 6월 14일과 15일에 동양잉크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매년 한번씩 열리는 특별 행사 외에도 회원들은 매달 두 번째 화요일엔 바쁜 업무와중이라도 정기 모임을 열어 서로간에 안부를 확인하고, 업계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43년을 이끌어 온 조직에 대한 열의도 세월 앞에 무상함을 느낀다는 그들. 43년을 이어 온 모임의 지속성을 위해 정우회 회원들의 건강을 기원해 본다.

〈이용우 기자〉